



2005 지도자 및 자율지도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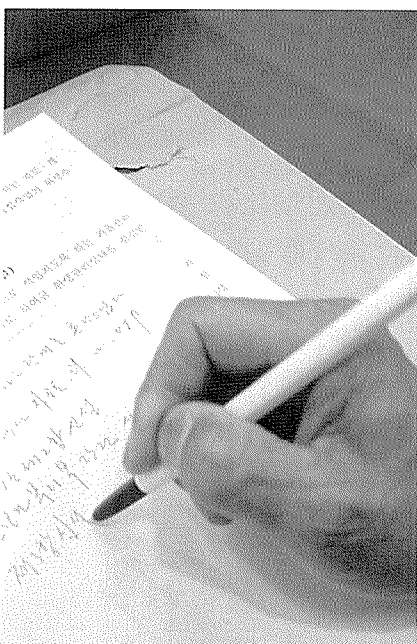
회원 위한 마음으로 불태운 ‘향학열’

(사)대한제과협회 2005년 지회·지부장 및 자율지도원 교육이 열렸던 대전 유성 로얄호텔은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생각하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알찬 프로그램과 진지한 강의태도로 어느 해보다 한층 충실했던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는 2005 지도자 및 자율지도원 교육 현장을 들여다본다. 글과 사진 김미선 기자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유성 로얄호텔에서 전국 지회·지부장 및 자율지도원 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사)대한제과협회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의 수준 등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 훨씬 충실한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을 위해 전국에서 350여 명의 지회·지부장과 자율지도원이 대전으로 속속 모이기 시작해 19일 오후 2시부터 입교식이 진행됐다.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은 입교식 축사를 통해 “흐르는 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지회·지부의 단결된 힘이 (사)대한제과협회 전체는 물론 제과·제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오늘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극심한 불황과 업종간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안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자율지도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교육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첫 강의를 맡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김수창 사무관은 ‘식품위생정책 방향 및 개정식품위생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올해부터 새로 바뀐 식품위생법에 대해 생활 속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는 시민식품감사인제도와 일명 ‘식파라치’로 불리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교육에 참가한 자율지도원들의 질문이 빗발쳐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짐작하게 했다.





3



4



5



6

1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은 올해 지회·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신임 지회·지부장에게 인준서를 전달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 김영모 회장은 "오늘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극심한 불황과 업종간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들에게 해안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교육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3 이번 교육에 참가한 자율지도원들의 학구열로 교육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4, 5 지회·지부장 분임토의를 통해 협회 및 업계 전체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6 지도자 교육과 자율지도원 교육이 함께 실시된 2005년 교육에는 무려 350여 명이 참가해 업계 발전을 위한 열의를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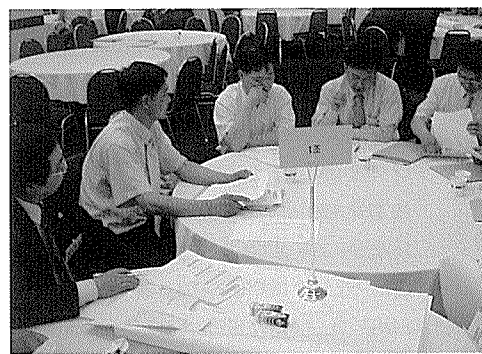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식품안전과 박기훈 행정사무관은 '식품안전관리정책 및 감사사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제과점 위생관리의 필요성과 자영제과점 영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위생진흥기금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서 자율지도원들은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풀빵이나 호두과자 등 불량 먹을거리가 넘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분임토의, 업계 발전적 아이디어 쏟아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위생행정 전반에 관한 강의가 끝나자 지회지부장과 자율지도원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위해 따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지회·지부장은 2005년 모범지회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황일하 지회장으로부터 울산지회의 회원만족경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특강을, 자율지도원은 자영제과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마인드를 재고하기 위해 마인즈토크과자점 신내점 인재홍 대표의 성공사례를 경청했다.

협회를 이끌어가는 지회·지부장의 올바른 리더십을 얘기한 이해병 교수(한남대 경영대학원)의 강의를 들은 한 지회장은 "회원 위에 군림하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되는 훌륭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회·지부장들이 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던 동안 자율지도원들은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의 강의로 기본적으로 알아둘 협회 행정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익혔다.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전국의 지회·지부장 100여 명이 10명씩 한 조를 이뤄 참가한 분임토의였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제휴카드 할인에 관한 대책 방안' '협회 조직 활성화 방안'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의 주제를 두고 지회·지부장들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내놓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을 통해 얻어진 발전적인 결과는 350명 교육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조별로 발표했다.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토론의 결과를 수렴해 회원을 위한 협회 정립을 위한 토대를 닦는데 십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다음 날까지 이어져 자율지도에 필요한 규정과 협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습득하고 2005년 (사)대한제과협회 지도자 및 자율지도원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주목할 만한 시선 '분임토의' 그날의 토의 주제와 결과

■ 프랜차이즈 제휴카드

- 15명 이내의 투쟁위원회 구성
- 제휴카드 철회 위한 서명운동 진행

■ 자영제과점의 경쟁력 확보

- 회원 경영마인드 제고 위해 협회 차원의 노력
- 지역의 우수한 기술인재 활용 기술력 보강
-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마련
- 자영제과점의 장점에 집중투자
- 대량납품에 필요한 허가 등 법률근거 마련

■ 협회 조직 활성화

- 중앙회 이사회 횡수 및 인원 증원
- 지회·지부장 모임 활성화
- 부지회·지부장에게 확실한 역할 분담

■ 협회 활동 활성화

- 각종 기능경기대회 및 세미나 적극 동참
- 마케팅 전문가 채용 홍보·구매·경영 관리